

'붕괴사고' 학동 철거공사 이르면 이달 재개

현장보존·공사중지명령 해제 시공사, 해체허가신청서 접수 안전문제 없으면 공사 재개

지난해 6월 붕괴사고가 일어났던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공사가 조만간 재개 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이 이르면 1일 재개발 사업구역 내 잔존 건물 철거를 위한 신청서를 광주 시 동구에 제출하겠다고 밝혀오면서다.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현대개발산업은 최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건축물 철거 공사를 위해 '해체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8월 1일 접수하겠다고 동구에 알려졌다.

시공사는 해체계획서·안전관리 계획서·도급 계약서·상주감리계약서·산재보험가입증명서·해체공사 동영상 녹화 위치도 등을 일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측이 공사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은 법원의 (사고) 현장보존 명령이 종료된 이후 관

련 서류 보완 등을 거쳐 조속한 철거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사비가 늘어나고 입주 지연에 따른 제반 비용 증가도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은 한차례 연장을 거쳐 지난 5월 사고 지역에 대해 내렸던 현장보존 명령을 해제했다.

동구는 이에 앞서 붕괴사고 직후 사업 대상지에 내려졌던 공사중지 명령을 지난 3월 조건부로 해제했다. 철거 업체 신규 선정, 신규 감리자에 의한 철거 공사 안전 확보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철거가 중단된 건물 35개 동에 대한 공사 재개를 승인한 것이다.

다만 지난 5월까지 법원의 현장보존 명령이 유지돼 공사는 재개되지 못했고 이 기간 시공사 측은 동구가 요구한 4가지 조건 구비에 집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업지 내 잔존 건물은 모두 107개 동이다.

2020년 착공 이후 전체 622개 동 가운데 515개가 철거됐다. 남은 107개 동 가운데 72개는 철거 중 붕괴 사고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고, 나머지 35개 건물은 철거를 위한 당국의 허가·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동구 관계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서류와 공사 계획에 문제가 없다면 이르면 8월 중순부터 공사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완이 필요하므로 공사 재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학동 633-3 일대 12만 6433㎡ 부지에 29층짜리 아파트 19개 동, 2300여 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 9일 철거 중이던 건물물이 붕괴해 도로 옆 승강장에 정착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승객 등 17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시공사 측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해 동구가 철거 재개를 승인한다고 해도 아파트 신축공사 돌입까지는 난제가 남아있다. 아파트 신축은 사업지 내 잔존 건축물 완전 철거 이후에야 가능해, 조합 측은 보상 금액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인 6개 동 입주주민과의 수용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3년만에 열린 장흥 물축제 31일 장흥 탐진강 일원에서 열린 제15회 장남진 장흥 물축제에서 관람객들이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번 물축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만에 개최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교육청 유·초등교사 220명, 중등 315명 선발

전남도교육청이 2023년도 유·초등 교사 220명과 공립 중등교사 315명을 선발한다.

전남도교육청은 31일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선발 예정인원과 시험일정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했다.

선발 예정인원은 유치원 교사 50명, 초등학교

교사 163명,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7명 등 총 220명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10월 3일부터 7일까지이며, 1차 필기시험은 11월 12일 실시한다.

2차 필기시험은 특수·비교과 포함 21개 과목 등 총 3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5일 공고 후 같은 달 17~21일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며 11월 26일 17개 시·도가 동시에 1차 필기시험을 치른다.

장애인 교사 선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과목에서 '장애인 교사 선발 총정원제'를 실시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지만 미래교육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선발인원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서 경찰국 반대 촛불집회 열려

안병하기념사업회·경찰직장협 버스터미널서 촛불 문화제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광주·전남 경찰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촛불을 들었다.

안병하기념사업회는 지난 29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중단'을 촉구했다.

문화제는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 회원들도 동참했다.

문화제를 준비한 안병하기념사업회 대표는 "치안본부 시절 무력 진압을 하지 않은 경찰관들은 강제로 옷을 벗거나 인신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정부가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며 과거로 돌아가려

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대표는 "1980년 5월 부친(안병하 치안감)은 5·18 당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려했지만 당시 치안본부 내무부는 '경찰도 무장하고 시민들을 제압하라'고 지시했다"며 "치안본부 내무부의 강압적인 지시는 국민들을 탄압하는데 이용될 소지가 다분했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여한 이경민 국가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다른 비대 권력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것"면서 "정부조직법 상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 중에는 경찰 또는 치안에 관한 사무는 없기에 행안부에 경찰통제 조직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박병규 광산구청장 금품제공 의혹 '무혐의'

경찰이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박병규 광주시 광산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박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경선과 본경선에서 박 구청장과 경쟁한 당시 경선

후보자들은 지난 5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박 구청장에 대해 금품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

경쟁자들은 "지난 1월 중순 당시 박 후보자가 광산구 한 식당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에게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발로 이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녹취록 발인 당사자가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찾지 못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농산어촌 유학' 장기형 확대 추진

학부모·학생 인기...5년 이상·가족 머물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

도심 학부모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정주형 장기유학 방식으로 확대 추진된다.

3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심 학부모와 학생들이 농·어촌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지난해 추진한 '전남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개선해 운영하기로 했다.

단기간 체류 형태였던 기존의 프로그램은 정주형으로 개설했다.

정주형 장기유학은 지역으로 전 가족이 이주해 최소 5년 이상 머무는 것으로, 지난 1학기 해남 북일초등학교와 두륜중학교에서 시범 실시했다.

두 학교의 정주형 장기유학은 교육청과 지자체(해남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민·관·학' 협업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도교육청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또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가장 시급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지자체는 양질의 주거·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학생 모집·배정·교육과정 운영 등의 역할 분담이 가능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활인구 유입형 단기유학의 운영기간도 현행 최소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학기 기준 전남 농산어촌 유학에 참여한 학생은 총 304명으로 전남 도내 18개 시·군 50개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중 21.9명(72.0%)은 다음 학기 연장을 희망했으며 연장 희망자 가운데 34명(15.5%)은 5년 이상 장기체류형 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 유학생 신청자는 86명으로 집계돼 총 305명의 유학생이 19개 시·군, 52개 학교에서 유학생을 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임대 및 예금 안내

-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방고객 확보
-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임대 안내			
층	호실	임대면적	호별 위치도
1	101호	27평	1층
	102호	40평	
	103호	51평	
2	201호	27평	2층
	202호	28평	
	203호	43평	
	204호	82평	
3	301호	금남몰라이트치과	3층
	302호	72평	
	303호	83평	
4	401호	103평	4층
	402호	72평	
	403호	83평	
5	501호	MG 문화센터 (갤러리 대관 환영)	5층
	502호	MG 골프클럽 (회원 대 모집)	

무궁무진 MGMG 정기예탁금

4.0% 6개월

선착순 100억 한도

MG골프클럽 특가

구분	이용기간	정상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특가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